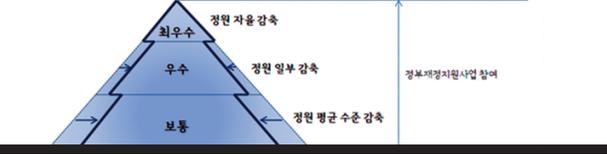


3 >> 국제캠, 기숙사 자치회 - 총학 간 갈등



5 >> 대학구조 개혁안 분석 및 대책·구성원 설문결과



학사다이러리 - 2013 후기 조기졸업 및 부전공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14.4.14(월) ~ 4.18(금)
접수장소 : 소속대학 행정실(조기졸업), 부전공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부전공)
신청자격 : 한 학기라도 평점평균이 3.75미만이 있으면 제외(조기졸업),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를 포함해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부전공)



지난 9일 우리학교를 비롯한 경기대, 동국대, 성공회대, 한양대 소속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maker

신임 서울부총장
한준태 (언론정보학) 교수



“구성원 간 소통에 중점 둘 것”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행·재정발전계획안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이 지난 2일 대규모 교직원 인사발령을 통해 가시화됐다. 양 캠퍼스 부총장실 및 총장실 중심의 의사 소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의 부재가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서는 미래정책원과 부총장 행정실 간 업무 조정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결과로 양 캠퍼스 부총장실의 경우 행정 업무 통과 조율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충을 잘 알게 됐다. 그는 “현재로서는 균형예산이라는 원칙 하에 일정 수준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전체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종 사안에 대해 소통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버넌스 개편이 논의되는 와중에 안재욱 전 서울부총장이 지난달 초 해임됐다. 공식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등록금 3.7% 인상안 제시와 국가 장학금 2유형 포기 발표에 따른 ‘소통’ 논란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말까지 대략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정원 감축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타 대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과별 통폐합처럼 한꺼번에 줄이는 방안은 지양할 것”이라며 “2016년까지는 학과에 상관없이 균등한 규모로 축소하되 그 이후부터는 내부적으로 평가 조정을 구성해 차등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원 감축, 한꺼번에 줄이는 방안은 지양할 것

지난달 26일자로 서울부총장에 임명된 한준태(언론정보학) 교수는 “현재 우리학교는 2010년대 들어 기존의 대학평가에서의 성장세에 비해 다소 ‘정체’된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들이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확실한 재정사업이나 기금 모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일 결정된 자율운영예산 삭감 결정과,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예산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원점에서의 예산 편성 등은 구성원의 이해가 필요한 만큼, 한 부총장은 인터뷰 중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경대학 학장으로 지내면서 일선 부서의

지난 2월 등책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담론인 ‘고통 분담’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입학 정원축소가 장기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안 전 부총장의 경우 구성원 사에서 ‘소통 부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던 등록금 논의에서 인상안을 번복해 재정 논의에 이해를 위한 ‘소통’을 강조하는 한 부총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입학정원 4%, 190여 명 축소 유력

정부, 대학구조개혁 추진
우리대학 대응은 어떻게?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권은은 기자 typhoon11@khu.ac.kr

4월말 접수 마감 예정인 대학특성화사업에 대비해 각 대학이 정원감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입학정원의 4%에 해당하는 190여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학과에서 몇 명을 감축할지는 미정이다.

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평가에 대학정원 감축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대학의 경쟁적인 정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특성화 사업의 경우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으로 ▲4~7% 감축시 3점 ▲7~10%시 4점 ▲10%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원감축 목표

가 아니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출해야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조건도 붙어있다.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학교의 입장에서 정부가 발주는 재정지원 사업 수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점차로도 당락이 갈라지는 현실에서 가산점이 있는 ‘정원감축’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시기로 제시한 1주기(2014학년도~2016학년도)의 경우 목표 감축 인원에 맞춰 학과별로 균등 감축하고, 2주기부터는 내부적으로 학과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감축이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5일 열리는 대학평의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대학평의회 이후 4월 말 특성화사업 접수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타 대학의 경우 차등감축을 실시해 비인기 학과에 구조조정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학교는 이와 관련한 합의점 도출 과정이 필요해 당장은 균등 감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주기, 학과별 균등 감축
2주기, 평가 후 차등 감축

현재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 부총장, 미래정책원장, 계열별 교수 11명이 참여하는 ‘편제개편 및 정원 조정 기획위원회’가 구성돼 감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반적인 감축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

▶5면으로 이어짐

최근의 입학정원 감축은 지난 1월, 향후 2023년까지 고등교육 학령인구가 현재의 대학정원보다 약 16만 명 줄어드는 것에 대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비롯됐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교육부가 BK21+, 학부교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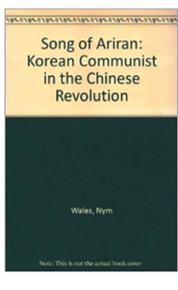
내 서재의 고전, 님 웨일즈 《아리랑》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②

김민철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는 평전이나 전기, 회고록 류의 책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대개는 과장되거나 운명처럼 정해 놓은 듯한 느낌, 게다가 방정식처럼 뻔히 답이 보이는 삶을 그린 글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대개는 메뚜기처럼 반주기적으로 삶의 공간을 옮기면서 책을 정리해야 할 때마다 순위를 다투는 놈들 가운데 하

나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 와중에 살아남아 가끔씩 손길을 타는 몇 안 되는 전기물들이 있다. 이들은 작가가 전기의 주인공



저항과 좌절, 방황으로 보냈던 내 젊은 날, 《아리랑》은 나를 위로해준 벗 가운데 하나였다.

공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려낸 글이거나 주인공 이외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은 경우, 그리고 한 인간에게 내재된 숭한 모순들을 잘 드러낸 글들이다. 아이작 도이처가 쓴 트로츠키 3부작이나 님 웨일즈와 김 산(金山)이 함께 쓴 《아리랑》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내 나이 30세, 6.25전쟁 7년간의 소모적인 군대 복역을 강요당하고 나와, 남들보다 뒤늦게 의식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청년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 헤매던 때였다. ‘김산’의 삶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리랑》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과 감동은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무슨 표현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다 그럴 수가 없다.”

리영희가 기자 시절 일본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리랑》은 노신과 더불어 그의 삶에 큰 힘과 위안이 됐다고 한다. 《아리랑》의 감동과 충격이 어찌 리영희뿐이었을까.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중간고사로 인해 3주간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12일자로 발행됩니다

전문가 칼럼 연재 종료

이현호(홍익대 건축학) 교수의 ‘교육공간과 건축’ ▶ 6면
대학교육연구소(KHEI)의 ‘대학을 생각한다’ ▶ 7면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대외협력처 | 서울 02-963-4874~6 하나은행 278-810023-98605 khsa002@khu.ac.kr
국제 031-201-3190~1 하나은행 428-141962-19304 future.khu.ac.kr

시선

사설 정원 축소, 경쟁심화의 또 다른 축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주도해온 '대학정원정책'은 오늘날 대학교육의 문제라 지적되고 있는 대부분의 과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가령 대학정원의 양적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의 질적 문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시설과 환경의 문제, 학생 대비 교원 수 확충문제나 대학의 자율성 문제 등은, 그동안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는 등한시 한 채 고등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만을 주도해온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의 부산물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최근 대학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일단 그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차치하고 한국 대학사회가 한 번쯤 고민해볼만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대학정원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담보할 여지가 높다. 현재 우리학교의 편제정원은 타 대학에 비해 약 1,000여 명이 많은, 수도권 대학 중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재정소모가 현존하는 것이 사실인데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의 여파를 고려해보면

정원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리 선부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우리학교의 정원이 증가한 배경을 살펴보면 정원감축을 고려해볼 이유는 좀 더 명확해진다.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1990년대에, 우리학교는 다양한 단과대학을 설립해 학문의 다양성을 강조했고 이로 인한 정원의 증가는 등록금의 존도가 높았던 당시 대학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당시 '대학의 규모가 곧 대학의 위상'으로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같은 정원증가는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우리학교의 평균등록금은 2012학년도 기준 763만 원인데 비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그 두 배가 넘는 1,598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여론이나 학생들의 경제사정 등 등록금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자면, 결국 정원의 증가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시대는 끝난 셈이다.

더구나 대학의 정원을 대학의 위상처럼 여기던 사회적 인식도 사라진 지 오

래다. 도리어 과도한 대학정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의미할 따름이다. 예컨대 2012학년도 기준 연세대와 고려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9명과 20명인 반면, 우리학교는 25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황과 대학 행·재정 발전계획안의 추이를 고려하면 추가 전임교원의 채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과도한 정원이 교육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 많은 구성원이 토로하고 있는 공간 문제 역시 정원감축을 전제로 둘 경우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의 재정, 교육, 연구 환경에 적합한 정원규모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 신문은 최근 우리학교의 정원감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정원감축 논의는 그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볼 때 상당한 우려를 자아낸다. 현재 논의 중인 1차 조정은 '균등감축'을 통해 각

학과에서 소폭 감축시키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2차 및 3차 구조개혁에서 반영될 예정인 '차등감축'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특히 차등감축을 위한 학과별 평가가 진행될 때 '취업률'이나 '교수의 논문 피인용수' 등 양적지표가 반영될 경우, 이는 대학평가로 상징되는 대학 서열화의 축소판이 돼 결국 학과 간, 학문 간 서열화라는 경쟁심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씻어 내기 위해서는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정원조정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뚜렷한 비전 아래서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학교가 보다 세밀하고 분명한 정원감축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부정원 감축과 우리학교의 재정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각 학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원감축을 진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요소로 평가할지 정해야 한다. 현재 학부의 뒤결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원의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돼야 하며, 나아가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합의과정도 면밀히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학생자치기구

취재수첩

김민정 (기자)



지난주 우정원 자치회장과 제2기속사 생활멘토장이 기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들은 총학생회(총학)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기속사 생활수칙이 있어야 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해줬다. 더불어 총학의 설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총학에 직접 말하지 않고, 나한테 설명하는 걸까?'

우선, 총학과 자치회 간의 기속사 규제와 관련된 갈등 속에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직접 들어본 나는 자치회 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기속사 생활을 이 년째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생활에서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다고 해도 말이다.

기속사의 각 생활수칙에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어느 날 갑자기 '자정 이후 배달음식 반입 금지'라는 생활수칙이 생겼다. 처음에는 이 수칙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한이 생기니 불편하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휴게실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소통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정말 소통을 할 기회가 없었거나,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이번 문제는 후자의 경우다

또한, 수천 명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기속사 측의 부담도 충분히 이해된다. 단 하나의 안전사고만으로도 '기속사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는 생활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학의 '학생들이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게 해달라'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현재 있는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규칙 제정에 학생들이 참가하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만일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규칙으로 인해 생겨난 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기속사 몫이지 않은가?

물론 여기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개인적으로는 공동생활에서 약간의 강제성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누군가는 이런 강제성이 벗어버리고 싶을 만큼 불편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의 의견차 때문에 학생들의 '자치기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속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속사 자치회, 그리고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총학. 기속사 규제 관련 갈등은 이들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할 문제다. 두 기구는 공통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정말 소통을 할 기회가 없었거나,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기자는 두 기구의 소통 문제가 후자의 경우라고 본다.

이번 달 초, 두 기구는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학 측에 따르면 면담 후에 두 기구는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학이 설문조사 초안을 만들어 자치회 측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으며, 연락을 회피했다고 했다. 결국, 자치회 측에서 기사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던 것은, 문제의 근본에 다가가기 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가 아닐까.

“그거 하면 뭐가 남아요?”

세시봉

김주환 (편집장)



학기 초, 다른 대학에 14학번으로 입학한 한 후배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과 인원이 50명 정도로 작다 보니, 과 바깥에서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였다. 차마 그 학교 학보사에 들어가 보라는 이야기는 고생길이 너무 흰해서(?) 못 해주겠고, 밴드부나 여행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재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 후배의 대답이 돌아왔다. "근데 그런 거 하면, 뭐가 남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함을 느꼈다. 몇 년 동안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기계처럼 공부만 하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막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동아리 활동마저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는 단순히 그 후배만의 성향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자화상이다. 요즘 단순히 '놀기만 하는' 동아리가 아닌 토의 동아리, 취업 동아리, 금융 동아리 등이 각광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아닐까.

사실 우리는 비생산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을 죄악시하도록 교육받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커다란 원관에 몇시에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공부를 할 시 스케줄을 짜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고, 중, 고등학생이 되면 오로지 '입시'라는 목표 하에 공부 이외의 모든 활동은 '불필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쟁 체제가 빚어낸 이러한 문화는 여가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뇌리에 각인시킨다.

가까스로 명문 대학에 들어가도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 20대 초반이 졸업하면 백수가 되고, 가까스로 취업한다고 해도 정규직이 아니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대학생을 여전히 여유나 낭만과는 거리가 멀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는 일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처럼 여겨지기 십상이다. 앞서 말한 후배도 일찌감치 그 사실을 깨닫고 벌써부터 토의 학원에 등록하고 생각에도 없던 광고 동아리에 들어갔다.

'모름지기 청춘이란 이래야 하는데...' 하는 투의 자기계발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혁신을 이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의 여유로움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떠오르기 마련이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스펙 경쟁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이라도, 때로는 '잉여'처럼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다. 비록 우리 사회 곳곳에 과정보다는 결과, 백년대계보다는 당장 눈 앞의 광고물을 중시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 해도 대학은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스펙 경쟁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이라도, 때로는 '잉여'처럼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다. 진정한 교육에 대한 성찰보다는 취업률과 대학평가에 집중해 취업률이 낮은 비주류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사제도도 취업에 유리하게 바꾸며, 대학 광고에는 '전국 취업률 0위'와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난무한다. 이런 대학에서 훌륭한 취업 준비생을 길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음껏 노는 것이 죄악화된 사회는 행복하지 못하다. OECD 국가 중 주당 노동시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나 자살률 역시 1위를 지키고 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주폭'을 뿌리뽑자니, 자살 예방 전화에 예산을 얼마나 쏟는지 하기 전에,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을 허락해 주는 사회가 건강한 것이 아닐까.



일방적인 선교 활동, 괜찮은가요?

와글와글 경희

윤초임 (기자)



지난 8일 우리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교 활동을 이유로 말을 건네 오는 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게재했다. 학과를 물어 공통점을 찾아낸 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냥 지나치려 하면 웃음을 붙잡거나 거짓말까지 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등 과도한 일부 선교 행위에 불쾌하다는 제보를 많이 접한 이유에서다.

이에 학생들은 '일부 외부인의 과도한 선교행위에 화가 나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게 된다', '길을 묻길래 가는 길을 멈췄더니 종교 이야기를 꺼내더라. 도와주기 위해 멈춘 걸음이 아깝고 화가 났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선교를 할 정도의 학식과 믿음이 있다면 몰라도, 귀를 닫고 강요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매우 불쾌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흔히 사립에 있어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신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이고 명쾌한 답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종교'라는 예민한 사안을 들고 누군가 접근할 때,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 종교를 널리 전하려는 의도라면 거짓 정보를 제공해 유인해서는 안 되며,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



제2기숙사는 지난달 징계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 명단을 기숙사 1층 로비에 공지했다

‘기숙사 생활 자율권’ 달라는 총학, 자치회 “최소한의 규칙 필요”

기숙사 규제 놓고 갑론을박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국제】 지난 3일에 있었던 4개 단과대학 학생총회가 모두 성사됐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총학)가 내건 공통안건 중 기숙사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통과된 안건으로는 ‘심야 자율출입 통제시간(00:00~05:00 폐지)’, ‘의무·추가식권 제도 폐지’, ‘기숙사 자치회비 선택 납부’ 등이 있다.

지난달 31일 총학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총회 안건 이외에도 ‘자정 이후 배달음식 금지’, ‘징계퇴사’ 등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강제로 진행되는 제도들을 폐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게 해달라’며 기숙사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기숙사 자치회(자치회)는 ‘기숙사 내에 학생 자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기숙사 문제를 총학이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제2기숙사 현재환(테권도학 2008) 생활멘토장은 “제2기숙사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일지를 통해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충분히 전달받고 있다”며 “생활수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한 것인데, 총학에서는 기숙사가 이를 일방적

으로 사생들에게 강요한다고 주장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 때문에 지난 1일 총학과 자치회는 면담을 가졌다. 그 결과, 입장차가 큰 부분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제2기숙사의 ‘심야 자율출입 통제시간’의 경우 자치회는 해당 규칙이 공동생활에서의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입장이다. 통금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많은데다가, 룸메이트의 취침과 면학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총학 황희재(기계공학 2010) 부회장은 “이는 제2기숙사에 생활하는 다수의 신입생을 관리하기 편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으므로 통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총학은 올해부터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 식당 식권을 최소 80매 구입하도록 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 홍석화(화학공학 2008) 학자사무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이는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우정원 자치회 백민협(스포츠지도학 2009) 회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최소 80매 구매를 원칙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하루 한 끼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숙사 측은 입사생들이 필수로 식권을 구입해야 하는 대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징계퇴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징계퇴사란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벌점기준점에 의거 생활관장, 사감, 생활지도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를 말한다.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이성 출입’, ‘외부인 출입’, ‘자정 이후 배달음식 반입’, ‘흡연’, ‘주류 반입 및 섭취’ 등이 적발되면 징계퇴사 조치된다.

총학 측은 위의 다섯가지 항목이 벌점기준점에 명시된 것과는 별개로 징계퇴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외부인 출입’은 벌점기준점에 의거해 벌점 8점을 부여해야 하지만 바로 징계퇴사로 퇴사 조치될 수 있다는 식이다. 총학은 실제로 학생에게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총 학자사무국장은 “지금 기숙사 규정에는 ‘금지’ 항목, 의무 식권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강압적인 규칙이 대부분”이라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를 것이기에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학은 지난달 기숙사에 대한 인식조사 차원에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식권 제도 폐지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현재는 입장차가 큰 문제에 대해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총장선출 정책투표제’ 제안 의결 방식 두고 이견도 노출

서울캠 전학대회 이모저모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가 소집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8일 저녁 오비스홀에서 열렸다. 전학대회는 총학 임원, 단과대학과 학생회 임원, 각종 학내 자치기구 대표와 일반 학생 중에서 선출된 참여위원이 참석해 총학의 활동 방향과 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제적인원 340명 중 216명의 참여로 열린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총학과 산하 자치기구의 사업 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질문은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것이었고, 총학이 플러터 인쇄비로 250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에 대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제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총학 예산안은 참석 인원 200명 중 166명의 동의로 통과됐다.

또한 지난 45대 총학 이후로 홈페이지에 공약, 집행부 소개 등의 내용이 전혀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학 박이람(사학 2008) 회장은 “현재 공약은 업데이트된 상태고, 나머지 내용도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등 5개 자치기구 예산 심의도 이어졌다.

총학 집행부 인준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심규협(법학 2008)

군이, 교육국장으로 송창동(한의학 2010) 군이,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사무국장으로 권예하(인문정보학 2010) 양이 정식 인준을 받았다.

전학대회에서는 총장 선출 제도 관련 정책투표 계획이 발표돼 구성원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총학은 올해 말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이 참여하는 정책 투표를 제안했고, ‘총장선출제도개선 학생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례와 학생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박 회장은 “12인의 이사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지만, 총장 선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책 투표를 거쳐 대학본부에 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처럼 구성원이 총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안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177명 중 122명의 동의로 통과됐으나, 회장의 발표 이후 학생 대표자들의 질문이나 의견 제시가 전혀 없이 의결이 진행돼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한편, 전학대회 도중 총학과 학자추의 사업계획안을 박수로 의결하려 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학과 학생회 이동진(경제학 2012) 회장은 “총학이나 학자추의 사업 계획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의결한다면 이후 대표자로서 학생들에게 결과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며 “이런 사안만큼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전학대회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대표자 이탈 문제도 발생해 회의 도중 사회자가 수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중앙학술소모임 ‘대자보’에서 저조한 대표자들의 참여율, 부족한 회의 시간, 비효율적 회의 구조 등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확대운영위원회 성원의 참석 여부 공개, 안건의 사전 논의, 회의 개최 시간 조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학 박 회장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표자 이탈 문제의 경우 강제성을 띤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회의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학년도 1학기 4월 교수법 워크숍 안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교수법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특강을 진행합니다. 교수능력과 강의스킬 향상에 관심있는 모든 교수님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이패드용 활동한 스마트 교수법
 - 일시: 2014년 4월 24일(목) 12:00~14:00
 - 장소: 전자정보대학 211-2호 강의실
 - 내용: 강의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기기용 앱 소개 및 시연
 - 강사: 조일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장)
 - 신청: 4월 22일(화)까지 전자우편(online@khu.ac.kr)으로 신청서 송부

■ 강의자적응도구 활용 워크숍: 온라인 강의 제작 실습 및 모바일 활용 콘텐츠 제작 실습
 - 일시: 2014년 4월 30일(수) ①오전 10:30~12:00 / ②오후 3:00~4:30 (택1)
 - 장소: 중앙도서관 지하층 정보교육실
 - 내용: 신규 모바일 강의 제작도구(Sync Think)와 콘텐츠관리시스템(KCMS)을 활용하여 시공의 제약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즉시 공유하는 기법 소개 및 실습
 - 강사: 최상일 강사(Xinics)
 - 신청: 4월 28일(월)까지 전자우편(klas@khu.ac.kr)으로 신청서 송부
 - 문의: 연구원 김승현 Tel. (031) 201-3198

※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http://ctl.khu.ac.kr) 또는 KLAS(http://klas.khu.ac.kr) 홈페이지 공지글 참고

■ 5월 일정 안내

일정	주제	강사
5월 23일(금) 12:00~14:00	영어강의 달인이 되기 위한 교수법 코칭 일문편	문혜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http://ctl.khu.ac.kr) 또는 KLAS(http://klas.khu.ac.kr) 홈페이지 공지글 참고

국제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2014학년도 1학기 교수법 특강 안내

일정	장소	주제	강사
4월 4일 23일(수) 12:00~13:30	법과대학 401호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수업사례분석	문혜진교수 (이화여대)
5월 5일 13일(화) 12:00~13:30	오비스홀 202호	수업에서의 프레지 활용하기	이도원 대표 (인브르프 커뮤니케이션)
6월 6일 5일(목) 12:00~13:30	오비스홀 201호	피워포인트를 활용한 효율적인 수업방법	이상훈 (클 디자인)

※ 상기 일정 및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수학습지원센터(무용학부관 101호, 961-0901~2)

2014학년도 1학기 학습법 특강 안내

일정	장소	주제	강사(인)
5월 5일 13일(화) 13:30~15:30	오비스홀 205호	글쓰기를 위한 주제적 독서법	김민영 (주행복한상상 이사)
5월 말	미정	인포그래픽 활용	미정
6월 6일 초	미정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미정

※ 상기 일정 및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수학습지원센터(무용학부관 101호, 961-0901~2)

서울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2014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모집 일정 안내

구분	일정	일시
정원내 (내국인)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4. 4. 28.(월) 10:00 ~ 5. 23.(금) 17:00 까지
	전형 (면접, 실기평가 등)	2014. 5. 31. (토) 10:00 예정 (추후 재공지)
	합격자 발표	2014. 6. 20. (금) 16:00 예정
정원외 (외국인)	합격자 등록	2014. 7. 1. (화) ~ 7. 4. (금) 16:00 까지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4. 4. 7. (월) 10:00 ~ 4. 25. (금) 17:00 까지
정원외 (외국인)	합격자 발표	2014. 6. 13. (금) 16: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4. 7. 1 (화) ~ 7. 4. (금) 16:00 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모집요강에 공지합니다.
 • 모집요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4월 초 이후 공지 예정이오니, 지원자께서는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보도



왼쪽은 리모델링 공사 전, 오른쪽은 공사 후 실험장비를 재정비 중인 실험동 복도 모습. 공과대학은 이번 공사에 33억 원을 투입 1,500평의 시설을 재정비했다

학내 PC OS 교체, '이제부터 시작'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지난 8일부로 윈도우 XP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학교 PC의 운영 체제(OS) 교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보안 관련 업데이트가 중단된 시점에서 윈도우 XP의 사용을 계속할 경우 각종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해킹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보지원처는 두 달 전부터 윈도우 XP를 윈도우7 등의 상위 버전 OS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하는 메일과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 교내에서 윈도우 XP를 사용하는 PC가 몇 대인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대학본부 부서의 경우 일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나 학생회실, 개인 연구실 등에 설치된 PC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지원처 최창호 팀장은 "OS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윈도우 XP를 사용하는 PC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PC 구입 시에는 반드시 윈도우7 이상의 OS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팀장은 "정보지원처에서 윈도우7과 윈도우8.1 설치 DVD를 대여해주고 있다"며 아직까지 업데이트하지 못한 부서가 있으면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양 문제로 상위 운영체제로의 업데이트가 어려운 PC에 대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실시간 가동 시켜 각종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윈도우 XP 업데이트가 중단됨에 따라 타 대학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운 상태다.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 정보통신팀 담당자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현재 대다수의 본부 부서 PC의 OS를 윈도우7으로 교체한 상태다. 이에 대한 홍보는 그룹웨어와 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이 담당자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PC는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중앙대) 정보통신센터는 6개월 전부터 구성원에게 보안에 대한 홍보를 해왔다. 중앙대 IT인프라팀 담당자는 "행정부서에 한해서는 윈도우7로의 업그레이드가 모두 끝났고, 개인 연구실에 있는 PC의 경우 학교 자산이 아닌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간 효율성 높이고 공통실험실도 생겨

공과대학 실험동 리모델링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국제】 지난달 31일 공과대학(공대) '공학실험동(실험동)' 리모델링이 완료된 가운데 현재 실험 장비를 내부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대 구성원들은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험동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실험동을 재정비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실험 장비를 구입해 실험 환경을 개선했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실험동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걸쳐 약 1,500평의 규모다. 33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SPACE21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재 공대는 약 7,000평의 '제2 공과대학관'을 신축할 계획이지만, 이에 앞서 시급한 공대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15개의 새로운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했으며, 이로써 부족했던 연구실과 실험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부생을 위한 '공통실험실'이

새로 생겼다. 리모델링 이전 실험동은 대학원생 위주의 실험실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학부생도 전용 실험실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대 행정실 이용석 계장은 "공대생에게 실습은 곧 경쟁력이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 장비를 갖춘 실험실이 조성돼 학부생들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반(反)성폭력 학칙 변경 목표"

총여, '레드 파라솔 데이' 진행

윤초임 기자 chom@khu.ac.kr

【서울】 총여학생회(총여)는 지난 7일부터 5일간 단과대학 앞에 부스를 설치해 반(反)성폭력 학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레드 파라솔 데이'를 진행했다. 이는 총여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과 동시에 학칙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총여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말 학생지원처장·여학생과장과 함께 학칙 재개정에 관한 1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학칙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성폭력에 관한 OX 퀴즈, 총여가 제작한 동화책 내용의 문제점 지적, 반성폭력학칙 재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화책에는 '성폭력을 당한 여학생을 둘러싼 부당한 시선'을 주제로 '경희'라는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총여가 주장하는 반성폭력 학칙 재개정은 크게 세 가지로,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 배치,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원이 사건당사자와 친분이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대책위원회에서 제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적 지원 확대 조항의 추가가 명시돼 있다.

행사를 지켜본 박지은(의상학 2013) 양은 "반성폭력 학칙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용했다"며 "하루 빨리 학칙이 재개정돼, 성폭력 상담실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 500명의 학생이 사진과 서면으로 지지한 이 행사는 정경대학·경영대학 앞에서 홍보를 시작으로 문과대학·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호텔관광대학, 청운관



호텔관광대학관 앞에서 '레드 파라솔 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총여학생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11일 오후 4시 정문 앞에서 종료됐다. 총여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회장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현행 반성폭력 학칙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5월경에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진행될 반성폭력 학칙 개정 서명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총여가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폭력예방법피해자보호에관한규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 8조(구성)-상담실

을 대표하고 상담실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담실장을 두며, 상담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라는 항목 가운데 '전문적 지식을 갖춘'이 빠져 있다는 점, 제 11조(구성 및 임기)에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원과 사건당사자간에 친분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점, 제 21조(예방조치)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조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지 않는 점이다.

『2014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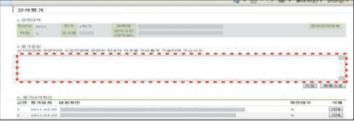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4. 4. 7(월) 10:00 ~ 5. 30(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가. '1.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치별로 올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평가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팝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정답'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참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총 16회)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 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매그놀리아 인증제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비교과과정 활동, 즉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학생활동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개인역량을 수치화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도

● 인증 요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3개 영역으로 구분된 비교과 과정에 대해 영역별 최소 인증점수(500점)를 달성하고 total 2,000점 이상 달성 시 인증!!

● 특전
- 매그놀리아 인증제 인증서 발급
-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활동 지원비 지급(등록금 범위 내 최대 100만원)

● 영역별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그램 제외)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지식 및 진인적 측면 교양, 지식, 정보역량 K-CESA, TOCT * 생활학사/외국인 등 취업외 상담 단과대학 지도교수 상담 전시회/발표회/공모전 참여 문화제/축제/예술제 참여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교내·외 활동 및 인턴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어 능력,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어학 성적 - 토익, 토플, 텡스, Q-TELP - 토플, 토플, 토플, 토플, 토플 - 스펀어, 토플, 토플, 토플 - 토플, 토플 *해외 봉사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해외 활동 및 인턴	창조적 사회인, 취업역량 봉사, 관리, 사회연계 *취업관련 상담 (oc.취원저 1:1 상담) *국내(교내)외 봉사 *대학의 지적승 *경진(대회) 수상 *논문게재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교내·외 활동 및 인턴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전화문의 : 02)961-0167~8(서울), 031)201-3066~9(국제)
*방문문의 : 청운관 1층(서울), 학생회관 1층(국제)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스킨푸드

'면접의 여왕' 메이크업 스튜디오

호감 가는 첫인상
'핑크빛 로즈 메이크업' 완성하고, 증명사진 촬영!

일시 : 2014년 4월 15일(화) ~ 17일(목) • 3일간
시간 : 10:00 ~ 17:00
장소 : 학생회관 입구
참여 방법 : 사전 예약 (새내기 메이크업은 현장 접수 가능)
접수처 : 학생회관 1F 취업진로처

EVENT 1

면접 / 새내기 메이크업 & 이력서 사진 촬영

EVENT 2

우리학과 응원전

EVENT 3

우정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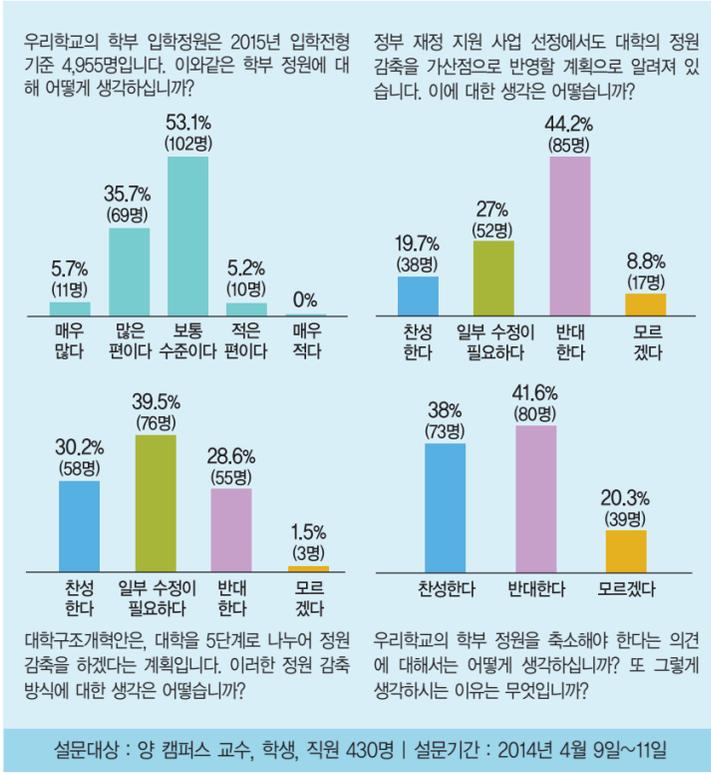
찬성 38.0% vs 반대 41.6% 대학구조개혁 모른다 '55.3%'

설문 - 정원감축, 구성원 인식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이 TF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주보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로 양분돼 있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이 답변자 430명 중 192명(44.9%)로 저조한데 있다. 이는 교수, 교직원, 학생을 막론하고 각 구성원 집단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학구조개혁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학교 구성원 단위에서까지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향후 논의과정에서 구성원의 이해와 설득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대학구조개혁을 알고 있는 192명 중 정원감축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73명(38.0%),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80명(41.6%)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유로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 '규모축소를 통해 재정·공간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경쟁력 없는 학과의 규모축소를 통한 교육의 질 상승' 등을 들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원도 적정하다', '학생 1인당 등록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원감축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해, 앞서 지적한대로 보다 적극적인 공론화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학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 '찬성한다'고 답한 인원은 19.7%인 반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27.0%, '반대한다' 44.2%로 나타났다. 반대의 이유로는 '교육부의 전형적인 횡포다',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사업간의 연관성이 없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전체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단계로 나누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자율 감축, 우수 이하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정부 차원에서 정원 감축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58명(30.2%)이 '찬성한다', 55명(28.6%)이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76명(39.5%)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해 감축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대학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를 반영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면에서 이어짐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고, 각 주기마다 대학평가를 실시해 전체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자율 감축이 진행되지만, 이외의 대학은 강제에 의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대학구조개혁안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지표를 공식하지 않았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4% 감축도 대학특성화사업의 가산점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다. 또한 당장 1주기는 균등감축을 이야기 하지만 향후 학과성과평가를 통한 차등 감축을 진행하는 2주기가 문제다. 교육부는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학의 사례로 볼 때 결국 핵심은 간단하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적지표에 있다. 특히 다른 대학에서 학과통폐합, 정원 감축에 반영하고 있는 취업률은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지난 2013년도

취업률을 살펴보면, 포스트모던음악학과는 취업률이 4% 미만이었다. 이밖에 무용학, 기악과 작곡과 등이 10%대 취업률로 저조했다. 이는 학과 특성상 '건강보험DB'에 연계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을 갖는 예체능계열의 특성이지만, 교육부는 "배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등록금-재정사업 사이 딜레마, 평가지표 미정으로 계획 담보상태

지난 9일 광화문에서 한양대, 동국대 등 다른 대학 총학생회(총학)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철회를 외친 서울캠퍼스 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은 "단순 취업률과 같은 지표로 소위 잘나가는 학과만 살리고, 그렇지 않은 학과를 없애겠다는 것은 반대"라며 "우리학교만의 평가지표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총학 홍성화(화학공학 2008) 학자사무국장 역시 "균등감축은 이해될 수 있지만,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특정과만 감축하는 것은 학문적 특성과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 우리학교 교비결산 수입 중 71.5%가 2013년에는 69.9%가 등록금을 통한 수입으로서 경쟁 사립대학에 비해

〈서울지역 사립대학정원 및 현황〉

대학명	재적인원	학과 수	학과당 평균 인원	교원 1인당 학생수	4%감축시 인원
건국대	24,196	75	322.6	29.8명	121명
고려대	27,590	62	445	20.5명	감축계획 없음
경희대	34,763	75	463.5	20.5명	195명
서강대	11,807	27	437.2	29.7명	66명
성균관대	26,985	58	465.2	18.4명	138명
연세대	26,199	60	436.6	19명	감축계획 없음
중앙대	20,691	49	422.2	25명	112명
한국외대	12,360	38	325.2	30.1명	67명
한양대	21,887	65	336.7	23.4명	117명

※ 자료 - 대학알리미·이데일리 보도 내용 편집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우리학교의 경우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입학정원 감축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재정지원 사업과 장기적인 등록금수입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셈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재적 학부생 수도 2013년 기준 34,763명으로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중 가장 많다. 때문에 이번 4% 감축도 서강대 66명, 성균관대 138명, 한양대 117명, 중앙대 112명 등보다 적게는 80명, 많게는 120여 명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을 '인원수'가 아닌 '비율'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불리한 점이다. 이에 따라 인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시행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계획안 발표 당시 임성호 교무처장은 "최근 교육여건이나 연구실적을 고려하면 우리학교는 최우수 등급에 무난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학주보 제1555호 2013.11.17. 3면〉

최우수등급 받아야 '자율감축', 합리적 방안 마련될까

그러나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평가 내용에 따르면 일부 지표의 경우 우리학교의 취약점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평가 영역은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 시설, 대학 및 법인 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대학특성화 등 총 9개다. 이들 지표 중 특히 '대학 및 법인 운영'

의 경우, 전반적인 법인과 대학의 재정 관련 지표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발생한 400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과, 부서별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예산삭감 여파가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속에서 교육부가 학생 만족도와 같은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낮은 취업률도 예상 지표에 반영돼 있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현재까지 상세한 평가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대학본부 내 TF의 관련 논의도 담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최우수 등급이 돼야 한다는 목표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정부가 대학들에게 단기간 내에 감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아직 평가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구성원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러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특성화사업과 관련한 감축계획도 미진한 상황에서, 향후 2주기 차등감축 등의 논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

"해외 우수 대학의 강사진과 국제 기구 등이 참여하는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은 특화된 강의와 다양한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기간 2014.06.30 ~ 2014.7.24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5개 강의 (GC 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4.03.24 ~ 2014.04.30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 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 02-961-0995 E-mail : summer@khu.ac.kr 홈페이지 : http://gc.khu.ac.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hugc

칼럼



이현호
홍익대 건축학 교수

※필자소개: 이현호 교수는 우리학교 SPACE21의 대표건축가로 키아즈머스를 공동설립했다. 현재 키아즈머스는 우리학교 SPACE21 등 교육시설과 주거공간, 그리고 다양한 상업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공간과 건축 ④

연재순서

1회: '시간'의 건축

2회: '시'가 있는 건축

3회: '도시'를 생각하는 건축

4회: '다름'을 포용하는 건축

캠퍼스, '다름'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

최근 흥대 앞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건물 중에 '삼거리 포차'라는 건물이 있다. 십 년 전 필자가 처음 홍익대에 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리는 그야말로 텅 빈 공터에 천막을 친 아주 큰 포장마차였는데, 몇 년 전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5층짜리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직후와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건물이 지어진 후 1층은 포장마차, 2층은 이자카야, 4층은 미용실 등 각 층별로 다양한 상점이 입주했는데, 이 다양한 공간들의 성격이 건물 외관에까지 반영되면서 전체 건축물의 형상이 감춰지게 된 것이다. 1층은 외관까지 포장마차의 천막 재질과 가볍고 예스런 재료들로 덮이게 됐고, 2, 3층은 목재 루버로, 4층은 검은색의 전벽돌로 마감이 입혀지게 되면서 본래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지배했던 노출 콘크리트의 흔적은 지붕을 남겨놓고는 모두 숨어들게 됐다. 이처럼 내부 공간의 성격이 건물 바깥의 외관으로 드러나는 건축물들이, 흥대나 이태원 등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건축물이 공간의 주인이기 보다는
스스로가 공간의 주인이고 싶은 사람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주택에서도 나타난다. 유명 건축가들이 작업한 모던한 형태의 주택은 그 내부공간이 거실과 주방, 서재 등 각 공간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흰색의 일관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건축적으로는 이런 통일성이 전체 공간을 지배할 때 해당 건축물의 완결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택에 거주하는 실 사용자는 실내 공간을 각 용도별로 재 디자인하길 원한다. 가령 서재는 목재로 서가를 만든 후 짙은 색의 벽지로 마감을 하고 싶어 하고, 딸의 방은 분홍색 톤의 인테리어와 꽃문양 등으로 장식하고 싶어 한다. 거실공간은 따뜻한 분위기의 색감과 패브릭 재질의 인테리어를 적용하길 원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무늬의 카펫이나 소파 천을 고르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건축물이 공간

의 주인이기 보다는 자신이 공간의 주인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공간 안에서 자신의 취향과, 상황별로 각기 다른 욕구를 충족하길 바란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그곳이 자신의 공간임을, 그리고 그 공간과 자신의 삶이 일체화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주택을 설계할 때에는 각 공간의 마감과 색감을 다르게 하고, 특정 공간의 디자인 개념을 전체 건축물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찾으려 하기 보다는 그 개별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으로부터 찾으려 한다.

그래서 주택도 하나의 지붕 아래 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한 건물도 각 층 공간의 다양함이 자연스럽게 외관에 배어나오고, 그 다양함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도시로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확장해보면, 저마다 각기 다른 건축물이 모여 가로(街

路)를 만들고, 상가들이 모인 가로와 사무실이 모인 가로와 행정관청이 모인 가로가 만나 수많은 다양성이 내재하며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를 형성하며, 또 그 도시들은 나라를, 그리고 다양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나라들은 한 데 모여 결국 세계화된 지구를 이루게 된다.

최근에 동대문에 지어진 외국건축가의 한 건축물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우리의 도시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다양함의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많은 건축가들의 개성있는 작품들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보다 관용과 다양함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캠퍼스도 커다란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이다. 커다란 도시의 관점에서 캠퍼스는 '학교'라는 의식적인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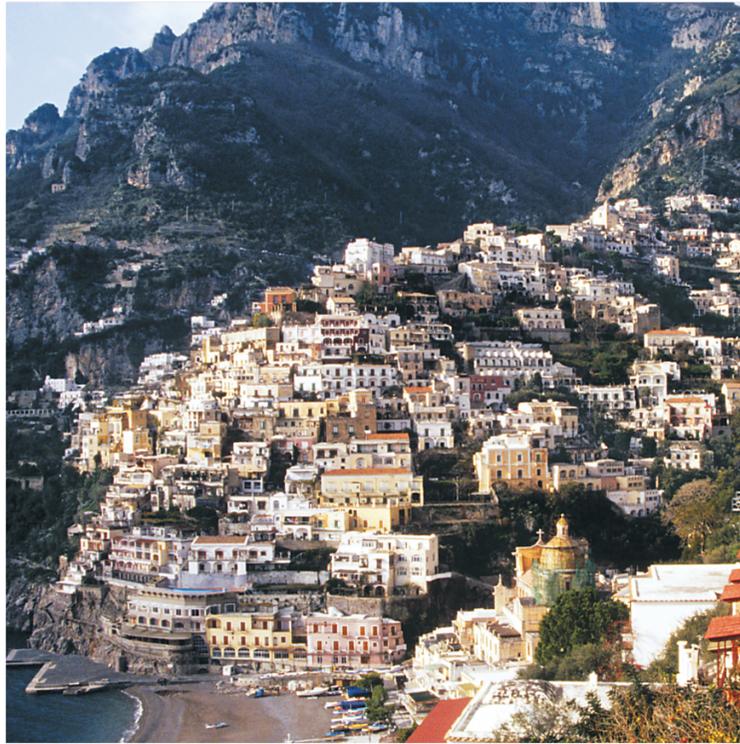
기를, 그리고 해당 대학만의 전통과 비전을 통일된 정체성으로 표현해내길 요구 받는다. 하지만 하나의 작은 도시로서의 캠퍼스는 그 내부의 다양함 또한 함께 안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건축물이 품은 시간의 깊이와 역사가 다르고, 그 건물의 구성원의 성격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건축물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구성원은 자신들의 공간임을 자각하게 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감성을 등록하게 될 것이다.

다름이 조화롭게 융화된
캠퍼스가 돼야

필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캠퍼스는 모든 구성원이 사랑하는 도서관, 구성원의 삶의 기억을 품고 있는 저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서로 다른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시간의 서사를 빚어내는 너른 광장, 그리고 이런 교정(校庭) 안에서 구성원들이 얻는 자부심들이 한 데 모여 커다란 자부심으로 하나 되는 풍경을 가진 대학이다. 모두가 획일적이고 통일된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조화롭게 융화돼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풍경이 캠퍼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사람이 도시를 만들지만, 그 도시가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몇 년 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한 중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다. 그때 소위 '강남'의 많은 아이들이 지닌 메마른 정서와 부족한 배려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획일화된 강남의 가로와 시간적 깊이가 없는 도시, 역사와 자연의 부재가 이 도시를 사는 사람들의 여유마저 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상대성을 인정하고 모든 다름을 다 안을 수 있는 도시가 미래의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캠퍼스다.



상대성을 인정하고 모든 다름을 다 안을 수 있는 도시가 미래의 도시일 것이다

서로의 다름이 조화롭게 융화되어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풍경이 캠퍼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교양 리포트 ⑥ - 영토의 경계와 흔적 : 이민 · 이주 · 이동

이동 : 상상의 장을 넓히기 위한 사유의 장



이선이
사학과 교수

'영토의 경계와 흔적 : 이민 · 이주 · 이동'은 배분이수에서 역사, 문화, 소통에 속한다. 인간 이동의 역사적 경위를 한국 사회를 축으로 살펴봄,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강의의 목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경제, 문화 사이의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그 범위는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자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동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호미바바는 "민족의 주변부는 중심을 바꾸어 놓는다. 경계 지역의 거래들은 민족의 중심인 거대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를 다시 쓰며 되돌아 온다"고 했는데 이동하는 인간들이 바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다시 쓰게' 하는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주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양상은 근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주와 이동이 근대 이후의 세계체제에서 특정한 양식으로 문제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이동의 역사에서는 다양한 동기가 작동한다. 경제적 동인, 정치적 동인 혹은 그 둘의 절묘한 결합, 그리고 그 외 무수한 요인들이 인간을 이동하고 이주하게 했다. 즉 인간은 '세계화' 이전에도 끊임 없이 이동하고 이주했다. 인간의 이주와 이동이 초역사적으로 존재했음을 상기한다면 이주하는 시대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 이주를 특징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이동을 역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세계화와 더불어 가속화되는 유통과 이주자를 둘러싼 이해의 지평을 넓힐



인간 이동의 동기로는 경제적 동인, 정치적 동인, 그 외 무수한 요인이 존재한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민 · 이주 · 이동을 통해서 영토의 경계와 흔적을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갈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민, 이주, 이동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사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즉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유는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길 학생들의 상상이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바로 상상의 장을 넓히기 위한 사유의 장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수업에서는 인간 이동의 역사적 경위를 한국 사회를 축으로 살펴본다. 우선 인간 이주의 역사를 중국사 속

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 화교, 재일 조선인, 탈북자, 사진신부, 일본으로 시집간 여성들,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사 속에서 이뤄진 이민, 이주, 이동의 역사는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를 사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임오군란 이후 이주해온 화교들은 한국과 동아시아 현대사 그리고 냉전체제 속에서 절박한 선택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식민, 탈식민이라는 상황 속에서 강자 제국 아내야 했던 재일 조선인, 월경하는 탈북난민은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를 살아있는 문제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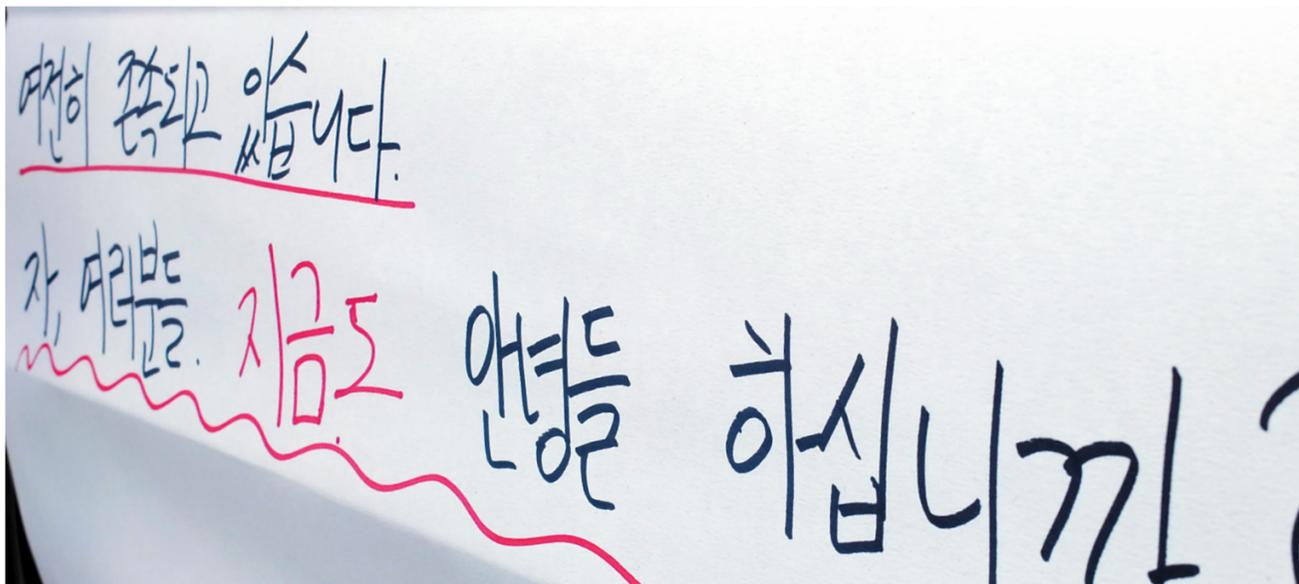
들에게 묻고 있다.

그 밖에 한국 사회로 새롭게 진입해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의 범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진신부로 하와이로 떠간 여성들과 일본으로 시집간 여성들은 한국 사회 속에서 획득한 문화자본을 갖고 주재국의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국가 간 경계를 어떻게 구획하고 확장, 축소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위의 나열한 주제들은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관련 영상물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제출한다.

나아가 학생들은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보는 국경 문제, 한국 화교들의 직접적 관계국인 한국, 중국, 타이완에 대한 인식, 재일 조선인에게 조국 · 고국 · 모국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앞으로 어떤 의미가 돼야 하는가, 국제결혼에서 국적이 갖는 정치적, 이주의 시대에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조별로 고찰, 인터뷰, 설문조사해 발표한다.

학생들은 이주자 혹은 이주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인식의 전환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인식 전환이 이 강의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학생들이 언제까지나 억눌러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줬다

침묵하는 대학생, 사회 모두의 책임

대학을 생각한다 ⑦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KHEI) 연구원



대학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대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나 ‘대학 구조조정’ 등과 같은 학내 문제에서부터 ‘민주주의 후퇴’, ‘실업난’, ‘민영화와 비정규직’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문제까지, 심지어 ‘선거’ 때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가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며 연대활동을 했던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스스로 나서기 힘든 대중들이 학생들에게 대신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현실이 어떻게 대학생들이 이끄는 것일까?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학생들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에게 졸업 이후 삶은 ‘괴물’ 만큼이나 두려운 존재다. 살아남기 위해 재학 기간 스펙 쌓기에 바쁘고, 졸업 자격을 갖추고도 ‘졸업유예생’ 신분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취업’과 연관되지 않은 무언가에 관심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고, 정치 참여는 고사하고 대학 동아리마저도 취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학생 모집이 어렵다.

대학 교육비도 녹록치 않다.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연간 8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숙사비에 사교육비,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대학 교육비는 연간 2천만 원에 달한다.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많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일정 성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학점 관리와 무관한 것들은 후순위다.

일각에서는 총학생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서는 이가 없고 투표율도 매우 낮아 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대학까지 있다. 학생회가 구성되더라도 간부조차 구하기 힘들고, 학생회비 징

수도 잘 안 된다. 대학 당국은 이런 학생회를 돕기 보다는 활동 자체를 봉쇄하기 일쑤다. 진보적 인사들의 대학 강연을 학생회의 ‘정치색 짙은 행사’라며 불허하고, 학칙을 통해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 가입 금지는 물론이고, 학내 집회를 비롯한 집단적 행위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중앙대는 대학구조조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징계 받은 학생의 장학금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대학에서 비판적 목소리와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던 대학언론의 현실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편집권 침해는 물론이고 예산 삭감과 더불어 법인이나 대학 당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발행한 신문을 회수하기까지 한다.

정부도 비판적 담론 형성과 같은 대학의 근본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취입률 같은 지표로만 대학을 평가하고, 이른바 ‘장사되지 않는 학문은 문을 닫으라’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아낀다며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사립대학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서라고 채근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가나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대학생들 앞에 놓인 현실은 어렵다 못해 엄혹하다. 하지만 20대를 향해 표피적 위로와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식의 책들만 쏟아진다. 상황이 너무 힘든 학생들 역시 이들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침묵은 본인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학의 현실이, 이들을 침묵하며 오로지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만 강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침묵은 이런 사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깨지기 힘들다. 대학의 현재적 모습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약육강식의 경쟁에 내몰려 있는데 대학생들의 침묵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을 바꿀 길 바라는 건 무리다.

지난해 말, 한 대학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게재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전국 대학가로 확산됐다. ‘안녕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기성세대들마저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반향을 일으켰지만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아쉬움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원인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언제까지나 억눌러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대학생들에게 비판도 하고 때론 야단도 칠 수 있지만 용기를 주고 함께하자며 손을 내미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참여마당

김영도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2)



강의, 수동적으로 ‘듣기만’해서는 안돼

얼마 전 EBS ‘다큐프라임’에서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를 주제로 한 영상을 봤다. 영상에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져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고 교수님이 이름을 호명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입생 시절에 수강했던 ‘인간의 가치 탐색’ 수업이 떠올랐다. 수업에서는 매시간 토론을 했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하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질문과 토론이 필요한 수업을 학생들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최근 강연 열풍이 불어 강연과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른바 스타강사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강사로 나와 대부분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형식이다.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열심히 내용을 받아 적는 모습도 화면에 잡히곤 했는데, 사실 강연은 듣다 보면 때로는 너무 상투적이고 별 것 아닌 내용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는 모습은 마치 받아쓰기 시간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우리가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이었다.

수업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나아가 사회에서도 내 목소리 하나 내기 어려울지 모른다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입식 교육 속에서 일방적인 수업만을 들어왔다. 대학 수업의 의미는 이와는 다르다. 진정한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 수업의 의미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가만히 앉아서 필기만 하는 정도라면 고등학생 때와 다를 바 없다.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마다 좋은 수업을 듣겠다고 전쟁을 하지만, 좋은 수업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질문의 장점은 좋은 수업을 만드는 것 외에도 또 있다. 질문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분위기 상 자신만의 의견을 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수업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수업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나아가 사회에서도 내 목소리 하나 내기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대학에 와서 졸업까지 듣는 수업들을 통해 저마다 앞으로 필요한 자산을 쌓아간다. 많은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지만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잘 쌓는지는 자신의 몫이다. 좋은 밑바탕을 쌓는 것을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1면에서 이어짐

‘표지를 가린 채 그늘에서 돌려져야 했던’ 《아리랑》이 1984년 동북에서 출판된 이후 군사정권의 시퍼런 서늘 속에서 그늘에서 그늘로 전져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저항과 좌절, 방황으로 보냈던 젊은 날, 《아리랑》은 나를 위로해준 벗 가운데 하나였다.

님 웨일즈는 김 산을 “내가 7년 동안 동방에 있으면서 만났던 가장 매력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중국과 한국의 현대사를 주조해낸 저 수많은 대미국의 타오르는 불덩이(白熱) 속에서 단련되고 형성된 사나이였다.”

김 산, 본명은 장지락(張志樂, 1905~1938), 평안북도 용천 출신으로 11살 때인 1916년 집을 나와 1919년부터 아나키스트 활동, 1921

년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 쑨원이 지도한 중국혁명에 참가, 장제석의 반동정책으로 광둥교포 지도, 1931년 체포와 석방, 1933년 다시 투옥, 1936년 7월 상하이에서 조선 민족해방동맹 창설, 1937년 항일군정대학에서 강의, 1938년 강성(康生)의 지시로 ‘트로츠키주의자이자 일본의 간첩’ 누명을 쓰고 처형, 1984년 1월 중국공산당의 복권 결정과 명예 회복, 2005년 한국정부 건국훈장 추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한 사나이의 짧은 이력이다. 혁명의 시대는 수많은 비극을 낳는다. 김 산의 마지막은 동료에 의한 죽음이었기에 더 비극적이다. “나 자신의 경우,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正)이고 무엇이 사(邪)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인가 하는 것을 논함으로써 사람을 단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내



역사 속에 있던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아리랑》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인가 하는 것을 논함으로써 사람을 단죄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가 묻는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낭비인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쓸데없는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가 하는 것이다. 다년간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 ‘오류’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오류는 인간 발전의 통합적인 일부이며 사회 변화과정의 통합적인 일부분인 것이다.”

한국어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강좌(6주) : 2014. 4. 14(월) ~ 4. 29(화) 추가 접수기간 : 2014. 4. 30(수) ~ 5. 16(금) 		
■ Level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회화 : 4. 29(화), 30(수) 17:30 일본어·중국어회화 : 4. 30(수) 17:15 		
■ 강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외국어강좌(6주) : 5. 7(수) ~ 6. 13(금) 보강 : 5. 16(금), 5. 23(금), 5. 30(금) 		
■ 개설강좌				
구분	강좌명	단계	강의시간	수강료 (전원료 포함)
정규 외국어 강좌 개강 5.7(수)	영어회화	Level 1 ~ 6		150,000원
	일본어 회화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	오전 7:45 ~ 8:45 (월~목) 오후 6:30 ~ 7:50 (월·수·목)	
	중국어 회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프랑스어 회화	오후 초급1, 초급2	오후 6:00 ~ 7:20 (월·수·목) 오후 7:30 ~ 8:50 (월·수·목)	110,000원
	Book Club		오후 6:30 ~ 8:00 (화)	90,000원
	Ted Talk		오후 4:30 ~ 5:50 (화·목)	
	JLPT 문법대체	N3 N2	오후 4:30 ~ 5:50 (화·금) 오후 6:30 ~ 7:50 (화·금)	110,000원
	HSK 대비반	4급 3급	오후 4:30 ~ 5:50 (화·금) 오후 6:30 ~ 7:50 (화·금)	

Tel. 02) 961-0081-2 <http://www.iie.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스포츠 / 문화



상영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왼쪽)와 홍리경 감독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불편해서 더 좋았던 영화”

다큐 <탐욕의 제국> 상영회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서울】“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공장에 다니지만 급여에서만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큐멘터리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일기장과 함께 시작했다.

지난 8일 저녁 청운관에서 열린 홍리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 상영회에는 약 5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상영회는 우리학교와 사이버대 교수 13명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상영 뒤에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반도체 노동자 인권운동 단체인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와 홍 감독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상영회를 기획한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우리 사회와 시대가 가진 아픔들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봉한 다큐 <탐욕의 제국>은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각종 질병과 장애를 얻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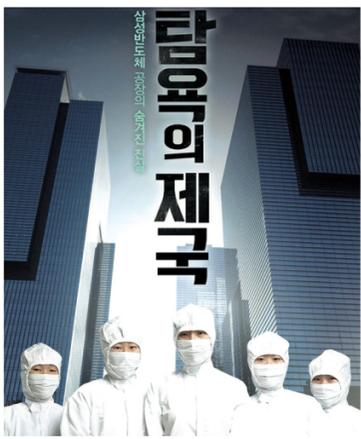
반복하는 피해자들과 유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행동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야기를 담았다.

반복되는 사측의 회유와 압력에 맞서 7년 동안 법정에서, 거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홍 감독은 담담하게 그려냈다. 카메라는 피해 노동자들의 일상과 생각을 따라가며 1,000%의 성과급, ‘초일류 기업’이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를 고발한다. 두터운 방진복을 입고, 유독한 화학 물질을 다루며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은 하나 둘씩 일터에서 사라져간다. 뒤늦게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거리로 나서지만 언론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는 본사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제지당한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한혜경 씨의 절규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서 홍 감독은 “<탐욕의 제국>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 행동한 적이 없었지만, 이 작품의 감독을 맡게 되면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 덕분에 끝까지 작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억되고,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아직 재판 과정이 더 남아 있고, 비단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공장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홍 감독은 대담 끝에서 앞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문제까지 아우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를 관련한 최용환(조리·서비스경영학 2008) 군은 “충분히 불편해서, 충분히 좋았던 영화”라며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음악과 함께한 '벚꽃 엔딩'

총학 주최 버스킹 행사
김창섭 객원기자 kcs0217@khu.ac.kr

【국제】지난 10일 총학생회(총학)가 사색의 광장에서 주최한 '경희인이 만드는 작은 벚꽃 축제, 벚꽃 엔딩'이 열렸다. 이는 길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버스킹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팀은 총 12개 팀으로, 음악 동아리 6팀과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6팀이 무대에 올랐다. 행사는 특히, 음악을 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내 여러 학생들이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더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연주자로 참여한 고한음(생체 의공학 2014) 군은 “동아리 사람들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며 “많이 긴장했지만 무대를 즐기고 내려온 것 같아서 재밌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버스킹 행사

를 기획한 총학 조정민(유전공학 2010) 학생복지위원장은 “항상 술만 먹고 강의만 듣는 진부한 대학생활이 아니라 버스킹과 같이 음악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대학생활을 신입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소음은 여전히 문제가 됐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수업 시간과 겹쳐져, 행사 장소인 사색의 광장 주변에 위치한 국제대학과 전자정보대학의 학생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것이다. 이주호(국제학 2013) 군은 “버스킹 행사는 정말 멋지고 좋았지만 수업 시간에 계속 소리가 들려서 수업에 방해가 됐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조 학생복지위원장은 “지나 해에도 소음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일렉 기타와 드럼 사용을 못하게 하며 신경을 많이 썼다”며 “다음 행사 때는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의 스포츠

<p>4월 14일 (2014 대학농구리그) 경희대 vs 동국대 오후 5시(국제캠퍼스 농구장)</p>	<p>4월 18일 (2014 U-리그) 경희대 vs 연세대 오후 3시(용인시축구센터)</p>
<p>4월 17일 (2014 대학농구리그) 경희대 vs 한양대 오후 5시(한양대학교 농구장)</p>	

4월 셋째 주(4.14~4.18)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 1. 캠퍼스 리쿠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특강명	진행자	일시	장소	비고
자기소개서 특강 (5차)	이희성 객원교수	4.14(월) 11:30-13:20	네오관 103호	6차 4.21(월)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후 별도의 승인연락 없이 참석
 ● 특강 관련 출석합조전 발급 : 특강 종료 후 현장에서 발급, 배부
-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변경됨)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금 (각 컨설팅 특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신청/상담' 메뉴에서 신청
집단상담	이종구 교수(취직처 연구실장)김용근,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컨설팅특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 상담 신청서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 3. 온라인 취업솔루션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외)**
 - 구성 :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서류전형(기업분석자료, 합격자 자기소개서), 면접자료, 동영상 강의 등
 - 이용방법 :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job1.khu.ac.kr) 로그인-좌측 추천프로그램 메뉴-온라인 취업솔루션 선택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4학년도 후기 전액장학 신입생 모집(주간) 평화복지대학원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단기 인턴십 재정 지원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4년 5월 12일(월) ~ 5월21일(수)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전형기간 : 2014년 5월 28일(수) ~ 6월 5일(목)
- 문의처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14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입시일정표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14.05.09(금)~05.21(수) 17:00		
서류제출	2014.05.09(금)~05.22(목) 17:00	우편발송은 5.21 소인분까지	
교원자격 취득 부적격자 통보	2014.06.03(화) 15:00	유선통보	
필답응시 전공	전공시험	2014.06.14(토) 10:30~12:00	영어교육(서울), 음악교육, 체육교육
	면접시험	2014.06.14(토) 14:00	
필답미응시 전공	면접시험	2014.06.14(토) 14:00	일반전형 그 외 전공 특별전형, 연구과정 전형
합격자 발표	2014.06.24(화) 15:00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조회	
합격통지서 및 등록고지서 출력	2014.06.30(월)~07.04(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출력	
합격자등록	2014.06.30(월)~07.04(금)	하니은행 전지점	

※ 1. 수험료 : 7만 5천 원(온라인접수 수수료 포함)
 2. 문의처 : 서울02-961-0135~6 / 국제031-201-2201~2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